

# “원래 있어야 할 곳, 고향으로 돌아와 좋다”

도난당한 성보 ‘송광사 오불도’  
기증자 미국인 마티엘리 부부  
포틀랜드박물관장 등과 방한

“도난문화재 반환 좋은 선례”

“잃어버린 ‘송광사 오불도’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와 기쁩니다. 도난당한 문화재들은 모두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마음 속 깊이 동의합니다. 이번 송광사 오불도의 성공적 반환은 한국 불교뿐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참 뜻깊은 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도난당한 ‘송광사 오불도’를 미국서 보관하다 돌려준 로버트·산드라 마티엘리 부부, 브라이언 페리소 포틀랜드 박물관장 등이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스님과 만났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오불도가 제자리를 찾게 돼 다행”이라며 “이런 뜻 깊은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1970년대 도난당한 송광사 오불도는 지난해 12월 이들의 도움으로 ‘환지분처’ 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미술을 가르치던 로버트 마티엘리 씨는 서울 인사동 한 가게에서 오불도를 발견, 이를 구매해 미국으로 가져갔고, 자택에 보관해 오던 오불도를 지난 2014년 미국 포틀랜드 박물관에 기탁했다. 이후 도난 불화임을 알게 된 포틀랜드 박물관은 오불도를 원소장자인 한국으로 반환하는데 마티엘리 부부의 동의를 얻었고, ‘송광사 오불도’는 도난 50여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오불도를 20년 넘게 자택서 보관해왔던 로버트 마티엘리 씨는 “한국불교에 있어 중요한 문화재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장식품으로만 대했다”며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 소중한 가치를 되살리게 돼 기분이 좋다”고 했다.

브라이언 페리소 포틀랜드 박물관장 역시 “오불도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겠다”며 “미국서 한국의 불교문화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아쉬웠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오불도 반환에 기여하신 이들의 예방을 받고 진심어린 감사인사를 전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불교의 소중한 보물을 그동안 잘 보관해줬을 뿐 아니라 도난 문화재 반환에 있어 좋은 선례를 남겨줘 고맙다”며 “송광사를 방문해 제자리를 찾은 오불도를 보고 더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도난당한 ‘송광사 오불도’를 미국서 보관하다 돌려준 기증자가 지난 20일 조계종 총무원을 찾았다. 왼쪽부터 산드라·로버트 마티엘리 부부, 총무원장 지승스님, 브라이언 페리소 포틀랜드 박물관장, 메리베스 그레이빌 포틀랜드 박물관 큐레이터.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신행혁신 운동 동참’ 서원  
신도지도자과정 45명 입교

이수자 한해 ‘선혜’ 품계 품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승스님)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도지도자 교육과정 입재식을 봉행했다. 개강일이기도 한 이날 입재식에는 수강생 45명이 참석해 신도지도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포교원이 주도하는 신행혁신운동에 동참할 것을 서원했다.

종단 신도지도자교육은 일반신도를 지도할 재가불자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사찰에서 입교, 기본,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십 년간 신행활동을 한 재가자를 대상으로 한다. 포교원은 지난 2015년 선혜 품계 특례 품서식을 봉행한데 이어 지난해 지도자교육을 시행, 66명의 신도지도자를 배출했다. 입교, 기본, 전문교육이 사찰에서 행해지는 것과 달리 지도자교육은 종단이 직접 시행하며, 이수하면 포교원장 명의로 선혜 품계가 수여된다.

올해 교육은 오는 9월24일까지 3개월가량 진행된다. 강의는 신행지도교육, 불교교리 및 소양, 포교실천, 조직실천지도와 신행혁신운동 등 5가지 분야, 총 28강으로 이뤄져 있으며, 종단이 운영하는 디지털대학을 통해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23일과 24일 이틀간 회향 연수에 참여하고, 신도지도자로서 견해를 담은 과제물을 제출하면 선혜 품계가 주어진다.

포교원장 지승스님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보살의 삶이자 공동체의 삶이며 지도자라면 이런 의식으로 무장돼 있어야 한다”며 “지도자로서 원력을 갖고 모든 이의 이익이 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 “배움 기회 농친 장년층에 제2의 인생을”

동국대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불교학’ 등 6개 전공 개설  
고교내신 무관...8월말 마감



기에 불교학 전공을 신설했다. 기존 학사학위 소지자는 불교학 관련 48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불교학 학사가 될 수 있다. 교육과목은 순수 교학부대 응용불교학까지 총 33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선(禪) 사상, 초기불교, 인도불교사, 한국불교사, 종교학, 불교학개론, 포교방법론을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이밖에 대중문화인사상 입문, 불교생태학, 불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불교문화프로그램 개발, 불교문화의 이해와 해설, 명상음악의 이해, 불교와 현대철학, 사찰경영과 중무행정, 선 수행 실수 등의 교과목으로 불교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기를 수 있다.

이번 2학기부터는 동국대가 강세를 보이는 경찰행정 전공을 신설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법조인, 경찰공무원, 행정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용 길러내며 군 수사기관, 대통령경호실, 사설 경비업체 등 유관기관에서 활약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1996년 동국대 부속 사회교육원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평생교육원(2011년 3월 명칭변경)은

현재 경영학 불교학 아동학 영어영문학 체육학 음악학 등 6개 전공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불교문화교육 음악교육 자격교육 특별교육 NCS 직업교육 경영부동산 동양철학 등 비학위과정도 알차다.

특히 올해부터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 눈길을 끌고 있다. 평생교육원이 위치한 학술관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했다. 성인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강의실 학습세미나실 휴게실 등을 보다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용자 중심의 수강신청과 교수-학생 간 온라인상의 토론 활성화, 멀티미디어 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

박선형 평생교육원장(교육학과 교수)은 “평생교육원은 일반인들에게 일생에 걸쳐 자기연마의 기회를 선사하며 불교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기관”이라며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적극적으로 복지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학기 신입생 원서접수기간은 7월부터 8월말까지이며, 인터넷(edulife.dongguk.edu)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서류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제2의 인생을 돕는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박선형·사진)이 7월을 맞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일반 대학처럼 정식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원이 발표한 모집요강에 따르면 불교학을 비롯해 경영학 아동학 영어영문학 체육학 음악학 전공에서 각각 80명씩 총 480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4년에 걸쳐 140학점을 이수하면 대학졸업장을 수여한다. 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라면 누구든지 대학수학능력평거나 고교 내신성적에 상관없이 입학해 일반 대학과 동일한 교과과정을 밟으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학사편입이나 대학원 진학 또는 유학도가 가능하다. 젊어서의 생활고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농친 장년층에게 인기가 좋다.

종교학교과는 정체성에 걸맞게 2015년 봄 학

불교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 / ibulgyo)

본·말사 주지 인사 (6월14일 총무원회)

동각스님 남양주 무량사	덕운스님 대전 덕운사	범륜스님 삼척 신흥사	성화스님 서산 망일사	범진스님 안주 송광사	희일스님 곡성 용주사	행진스님 합천 동병무사	무원스님 파주 영묘암

### 희망의 집짓기 캄보디아에 자립의 희망을 심어주세요

인구 4명 중 1명이 절대빈곤에 빠져있는 나라, 캄보디아! 양코르와트의 찬란함 속에 가려진 빈곤은 캄보디아 주민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살 집조차 마련하지 못한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기엔 현실은 너무 가혹합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가족 모두가 ‘자립의 희망’을 싹 틔울 수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세요.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불자들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국 불자들의 자비행이 이웃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에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보람된 일에 자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비의 길을 불교신문과 로터스월드가 함께 하겠습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01-0058-7941-81 (예금주 : 로터스월드)  
• 문의 : 02-725-4277 mitra@lotusworld.or.kr

| 공동 주최 | 불교신문 LOTUSWORLD Make the World Sustainable